

‘김종필 증언록’ 독후감

하늘의 뜻을 받아 적은 회고록

중앙일보가 게재한 김종필 총재의 회고록 “笑而不答”은 제목만 보고도 그분의 근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신문기자 시절부터 그분의 정계행보를 가까이서 지켜 본 필자는 “問余何事 棲碧山” 하니 “笑而不答 心自閑”이라고, 그분을 대신 읊어준 이태백의 시귀에서 숙연함을 엿누를 수 없었다.

구순을 바라보며, 우여곡절이 많았던 정치 숲에서 나와, 호수에 내리는 고요를 음미하는 근자에 하늘이 가리키는 대로 담담하게 기술한 회고록이 가슴에 아릿하게 스며든다. 흔하지 않은 일이다.

“JP는 역사다” 맞는 말이다. 상처투성이 한국 정치를 이끈 거인, 김충재가 받을 마땅한 훈장이다. 오래 기억될 것이다. “別有天地 非人間”의 세계를 오래 오래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신 경 식
헌정회 회장
제23대 정무1 장관
제13,14,15,16대 국회의원

JP의 진면목-여백(餘白)의 정치학

JP정치의 노른자위는 여백(餘白)이다.

여백은 유연성을 낳는다. 울타리에 갇혀 메마르고 거친 말투에 길들여진 이 땅의 정치판에서 JP의 언어는 온유하고 윤택했다. 정치는 말로서 승부하는 현장이다. 여백과 행간을 거느린 JP의 유니크(unique)한 말 맵시는 늘 시대의 화두를 선점했다. 내면 세계를 로망(roman)으로 채우고 있는 특유의 성정이 고스란히 투영된 탓이다. 인간 김종필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그의 언어풍경은 자신이 재단하는 야심적인 정치의 차별화를 겨냥한 신선한 시도였다.

중앙일보의 의욕적인 창간 50주년 특별기획인 “김종필 증언록 笑而不答”은 아직은 생소한 우리의 ‘증언문화’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JP는 역사다” 짧은 외마디 확신에 찬 말 속에 농축된 현대사의 봉인된 진실들이 두루마리 풀리듯 시원스레 펼쳐졌다.

내용의 깊이와 너비에서 YS, DJ, MB의 회고록을 넘어섰다는 평론이 뒤따랐다. 여기에 언론의 야무진 고증이 에누리 없이 참견함으로써 객관적 투명성이 뒷받침됐다는 방점이 찍혔다. JP는 파란만장한 대장정. 그 파노라마의 중심을 숨 가쁘



정 재 호
헌정회 원로회의 부의장
제9,10대 국회의원
칼럼니스트

게 완주한 불세출의 마라토너다. 5·16 거사를 '로망'에서 솟구친 애국심의 발로 라고 압축 정리한 그는 한 두 마디 툭툭 던지는 말 속에 범상스럽지 않은 말뼉을 담는다. 가슴에 깊숙이 내장된 풍만한 온고(溫故)와 지신(知新)을 하나로 아우르고 넘나드는 말의 운치는 독보적인 그의 진면목이다. JP는 대권(大權)을 놓쳤지만 대업(大業)을 일구어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굴기의 청년기로 자리매김 된 '박정희 치세'의 그랜드 디자 이너로서 민주화 실현의 정문(正門)을 연 '3金시대' 트라이앵글의 한 축으로서 일 세를 풍미하지 않았던가.

김종필은 풍운아였다. 서슬이 시퍼런 권력과 휘몰아치는 삭풍 속의 야객(野客)을 두루 경험한 그는 벼슬을 내려놓았을 때 별거벗고 홀로 선 겨울나무의 어엿함을 노래했다. 걸으론 권력의 정수리를 여한 없이 누볐던 JP지만 그의 권력 행보는 줄 곧 '8부 능선'에 멈췄다. 그의 권력관(觀) 한 단면이다. "권력은 아껴 써야 하는 법. 씹씹이가 헤쳐서는 안 돼..."

JP 여백의 정치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한 風雲兒 一生의 敘事詩

J소이부담은 5천년 민족사를 천지개벽시킨 불세출의 개척자로서 기복이 우수한 풍운아의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인물의 일생을 엮은 서사시이다. 이것은 JP가 우리 조국의 오늘을 창조한 산고(産苦)의 기록인 동시에 오늘의 민족사의 한 축약 판(縮約版)이기도 하다. JP의 등장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곤욕의 역정을 회천(回天)시켜 민족중흥의 대역사(大役事)를 이룩하라는 민족사적 소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가 두 번씩이나 외유를 떠나야 한 것은 마치 적과의 격전 중에 옥에 갇혀야 했던 이충무공을 방불케 하는 불운이었다. 그렇건만 그는 조금도 자신의 비운을 한탄하거나, 어느 누구도 원망하는 일 없이 조용히 자연을 벗 삼아 화필을 놀리며 인고(忍苦)의 세월을 보냈으니 이것은 그의 높은 기상과 인품이 얼마나 비범한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다가도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국은 또다시 그를 불렀으니 그것은 그의 경륜과 능력이 그만큼 탁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려움이 가시면 그는 또다시 토사구팽(兎死狗烹)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그것은 그가 너무나 '튀어나온 돌'이기 때문이었을까? 그 가운데에서도 10.26사태 이후 온 국민의 눈에는 이제부터의 국가경영은 그의 몫이려니 하



박 형 규
전 서울신문사 상임감사
제10대 국회의원
전 신민주공화당 중앙훈련원장

고 비쳤건만, 그의 국가봉사의 소명이 거기까지가 한계였던가, 그가 그 기회를 잃은 것은 그 자신만의 불운이 아니라 실로 우리 민족의 불행이었다. 그것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그를 촉망했던 국민에게는 큰 실망과 아쉬움을 안겨 주었고, 일생동안 그를 따랐던 우리에게는 천추의 한으로 남아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누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룩한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업적은 영원히 청사에 불멸의 금자탑으로 남아 온 겨레의 흠모 속에 한 신화가 되어 길이 후세 국민들의 입에 회자(膾炙)될 것이다.

‘증언록 소이부답’은 방대한 역사적인 작업

작년 을미년 2015년은 JP에게 여러 중요한 일이 일어난 해였다. 연초에 영세반려 박영옥 여사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감내해야 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국민들이 애뜻하고 안쓰럽고, 서글픈 마음을 새기느라고 온 나라가 들석하는듯 느낄 정도였다.

그리고는 회고록을 안 쓰겠다고 고집하던 JP가 ‘증언록 소이부답’을 3월부터 중앙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월, 수, 금 사흘씩 12월까지 열 달간 증언록은 계속되었다. 근 일년간 많은 사람들이 증언록을 환희와 감동으로 읽었다. 특히 지도층 지식인들의 호응이 컸다. 30대 중반에 혁명을 하고 90세까지의 인생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 동안 신문 부수가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JP가 아니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들의 내용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리고 JP의 엄청난 기억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연재 말미에 중앙일보는 증언록을 통해 밝혀진 ‘새로운 진실’ 10가지를 소개했다. 그러나 증언록이 밝힌 진실은 정말 수 없이 많다. 모두 흥미로운 현대사의 기록들이다.

5.16 혁명 당시 우리나라의 사정과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을 비교할 때 이견 너무나 차이가 나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미꾸라지가 용 되고, 천지가 개벽한 격이 아닌가. 그 당시 장충체육관을 지을 실력이 없어 필리핀의 건설회사가 지어 주었다는 것이고, 지금 광화문에서 있는 미국대사관빌딩과 역사박물관 건물이 지금 보면 아주 멋있고 멋이 없는 건물이건만그당시 웅장한 건물로 이름이 났는데 외국기관이 지어준 건물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연재한 JP의 ‘증언록 소이부답’은 방대한 역사적인 작업이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통이 따랐을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중앙일보의 박보군 대기자, 전명기 국장, 최준호 기자, 한애란 기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큰 일 했다.



이 태 섭

정무·과학기술처 장관
제10,11,13,15대 국회의원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회장
(재) 운정재단 부이사장

차세대들에게 미래를 살아 갈 지표

처음부터 매번 증언록을 읽을 때마다, 나이 탓일까? 소이부담이 뜻하는 정서적 배경까지 파악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될까하는 노파심이 들었다. 그만큼 변화의 골이 깊은 시대의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작금이다.

격랑의 한 시대를 이끌어 오늘이 있게 한 윤정 김종필 어른의 파란 만장한 기록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인 것이다.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겪은 세대는 말 할 것도 없지만 차세대에 속하는 이들에게 조차 우리의 현대사를 돌아보고 다시금 미래를 살아 갈 지표를 삼을 수 있게 하는 생생한 증언록이라는 점에서 “소이부담”의 탄생을 뜨겁게 기뻐한다.



고 은 정
KBS 성우 공채 1기
서울예술대학 교수

10여년 준비 끝에 나온 증언록

‘윤정 김종필 증언록’의 저자이신 윤정 김종필 전 국무총리님을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가까이에서 미력이나마 성심으로 보좌해 온 사람으로서 증언록의 출간과 더불어 남다른 감회를 갖습니다.

윤정 총리님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의 위대한 발자취는 평범한 필설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혁명 초심이 옳았다는 보람을

윤정 총리님께서서는 1961년 서른다섯의 청년 장교시절,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5.16혁명을 기획하고 주도하셨습니다. 나아가 세계 최빈국이라는 비참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조국근대화 과업을 설계하시고 그 실천에 앞장서셨습니다.

총리님은 반세기 동안 정계에서 활동하시면서 두 차례의 국무총리, 9선의 국회의원, 그리고 4개 정당의 총재를 역임하시며 역대 정권의 출범을 돕고 국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가발전에 헌신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에 총리님께서서는 자신의 혁명 초심이 옳았다는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역사란 그 시대적 상황과 사료를 근거로 사가(史家)들이 기록해 나가는 것”

2004년 정계를 은퇴하신 후 각계의 많은 분들이 “윤정 선생이야말로 조국근대화의 최고 수훈자이며, 현대사의 산 증인이므로 회고록을 집필하여 후대 역사가들에



김 상 운
국무총리 비서실 비서관
자민련 총재 특별보좌역
윤정장학회 감사

게 남겨 주실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총리님께서 “역사란 그 시대적 상황과 사료를 근거로 사가(史家)들이 기록해 나가는 것”이라며 회고록 집필을 고사하셨습니다.

그래도 총리님 보좌진들은 자택의 서재와 창고 등에 쌓여있는 1톤 트럭 3대 분량의 자료들을 분류 및 정리해 사진과 영상자료들은 ‘화보집’으로, 주요 연설문과 친필 기고문들은 ‘어록집’으로, 연대기별 동정 일지 등은 ‘연보집’으로 각각 집대성해 두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 약 10여 년 간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책자 발행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출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5년 5월 중앙일보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윤정 김종필 화보집’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앙일보에 총리님의 현대사 증언을 연재하기로 하고, 2014년 10월부터 1년 동안 매주 토요일에 인터뷰를 계속해 2015년 3월부터 매주 세 차례 중앙일보에 ‘소이부답(笑而不答)’ 제목으로 11월말까지 총 114회를 게재했습니다.

기사가 연재되는 동안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등 해외 독자들로부터 증언기사의 단행본 발행을 요청 받고 이번에 책자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단행본 발간을 흔쾌히 맡아주신 중앙일보사와 미래엔 와이즈베리 출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는 허업(虛業)이라고 말씀하시며 증언을 마무리

윤정 총리님께서 우여곡절과 영욕이 교직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올해 병신년에 구수를 맞이하셨습니다. 90 평생 동안 비정한 권력의 횡포와 못다 이룬 숙원 등 수많은 회한에 대해서는 끝내 ‘소이부답’하시고, 정치는 허업(虛業)이라고 말씀하시며 증언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국근대화와 민주화의 초석을 놓아주신 윤정 총리님의 민족사적 공훈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믿습니다. 총리님의 백수강령을 염원합니다.

‘김종필증언록’의 발행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중앙일보사 취재진과, 미래엔 와이즈베리 출판사 제작진,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 자료 발굴과 정리에 애써주신 이덕주, 조희선, 정원조, 윤애란, 최인관, 신문영 동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현대사 증언을 시작할 당시까지도 윤정 선생님 곁에서 내조의 덕을 베풀어 주시던 박영옥 사모님께서 이 증언록의 출간을 보지 못하시고 지난해 타계하셨습니다. 경건하게 명복을 빌며 이 증언록을 영전에 바칩니다.

♡ 후원회 계좌 구좌번호 ♡

KEB하나은행 262-910016-32504 (재)윤정재단
NH농협은행 301-0185-9589-91 (재)윤정재단

“JP는 역사다!”

5·16부터 노무현까지,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현대사

김종필 증언록



김종필 지음 | 중앙일보 김종필증언록팀 엮음
고급양장본 | 1권 (530쪽) · 2권 (436쪽) | 세트가 50,000원

“JP는 회고록 문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

홍석현 중앙일보 · JTBC 회장

“한일양국의 우호발전을 위한 불멸의 가교역할을 하는 책”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국 전내각총리대신